

## 칼빈의 섭리론<sup>1)</sup>

이오감

그리스도대학교 교수

### I. 서론

종교개혁은 로마 가톨릭에 대한 투쟁이라는 양상을 가졌다. 그런데 종교개혁 진영은 소수 세력이었기 때문에 투쟁은 언제나 위태로운 시

- 1) 이제까지의 칼빈의 섭리론에 대한 연구로서 대표적인 것은 J. Bohatec, *Calvins Vor-sehungslehre*, in *Calvinstudien, Festschrift zum 400. Geburtstag Johann Calvins*, (Leipzig, 1909). E. De Peyer, "Calvin's Doctrine of Providence", *The Evangelical Quarterly*, 10(1938), E. Doumergue, *Jean Calvin, les hommes et les choses de son temps*, IV, (Lausanne: Georges Bridel & Cie Editeurs, 1910). W.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3). F. Wendel, *Calvin, sources et évolution de sa pensée religieuse*, 2e éd., (Genève: Labor et Fides, 1985). P. H. Reardon, "Calvin on Providence",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vol. 28 (1975), Ch. B. Partee, *Calvin and Classical Philosophie*, (Leiden: E. J. Brill, 1977) 126-145.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7), 100-116. R. Stauffer, *Dieu, la Création et la providence dans la prédication de Calvin*, (Berne: Peter Lang), 197. 이 저술은 섭리에 관한 칼빈의 설교를 풍부하고 방대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 점에서 나는 그의 덕을, 자료의 인용이라는 면에서 많이 본다.

련의 연속이었다. 루터나 쾰링거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굳건한 신앙을 가졌던 것은 그런 상황과 관련 있다. 그 섭리신앙은 특히 칼빈에게서 잘 나타난다. 칼빈은 종교개혁이 성공했지만, 교회가 여전히 불안정한 정세와 로마 가톨릭의 강력한 공격들 속에서 조금도 안심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교회가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를 떠다니는 조각배와 같아서, 하나님의 섭리에서 안도하게 된다”고 설교했다. 그는 이미 『기독교강요』 초판에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내세우며, “그리스도의 교회는 온전히 생존해왔고, 또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우편에서 통치하시므로 생존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칼빈에게서 섭리는 단지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는 우주 자연 전체에, 그리고 더 좁게는 신자들 개개인의 삶에 직결되는 것이기도 했다. 그는 신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 섭리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매우 강조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것이 가장 절망적인 비참이고, 그 진리를 아는 것이 바로 최상의 축복”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섭리를 중요한 것으로 여겼고, 신자들을 무엇보다도 섭리 신앙으로 인도하기를 원했다.

그렇다면 칼빈의 섭리론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즉 이 논문은 칼빈에게 나타난 섭리의 내용은 무엇이며, 또한 그것은 어떤 성격, 어떤 효과를 갖는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점들을 밝혀보고자 한다.<sup>5)</sup>

2) *Sermon on the Acts of the Apostles*, Du Dimanche 25e jour d'aoust 1549, I; 1-2, *Supplementa Calviniana*, *Sermons in diis*, VIII,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4), 2.

3) *Institution*, (1536), *Opera Calvini*, I, 20.

4) *Institution*, I, 17/11.

5) 그러나 여기서는 칼빈의 섭리론 중 악의 문제, 즉 신정론은 다루지 않는다. 참고, 이오갑, “칼빈의 신정론”, 『말씀과 교회』, 2006년, 첫째 호

## II. 섭리란 무엇인가?

칼빈에게 있어서 섭리란 우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그것들의 상태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는 예레미야 설교에서 말한다. "모든 피조물들이 자신의 상태로 유지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분에게서 피난처를 구할 수 없습니다..."<sup>6)</sup>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한 번 창조하고 그만 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보존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창조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섭리의 하나님이시다. "...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신 것은 그가 세상을 한 번에 창조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이 세상을 유지하고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sup>7)</sup>

섭리에 대한 그런 이해는 칼빈 신학의 초기부터 일관된 것이었다. 그는 『기독교강요』 초판에서 이렇게 썼다. "그는(하나님) 한 번 이룬 것을 현재도 유지하고, 돌보고, 운행하게 하고, 보존하며, 그의 선함과 능력으로써 만물이 즉시 붕괴되고 무 가운데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막아 주신다. 그의 섭리로써... 그는 만물을 조정하신다."<sup>8)</sup> 그런 칼빈의 섭리관은 이른바 *manutenentia*(유지 또는 지탱)나 *conservatio*(보존)라는 용어로 표현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칼빈의 섭리는 다름 아닌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유지' 이고 '보존' 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리샤르 스토페르가 전통적인 개혁교회의 교의학에 의존해서 지적했듯이, 칼빈의 섭리는 단지 *manumenentia*나 *conservatio*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고 언제나 *rectio*(통치)나 *gubernatio*(지배)였다. 즉 하나님의 섭리는 단순한 유지나 보존의 의미를 넘어서 더 적극적이고 능

6) Sermon du Samedi 15e jour du Juing 1549, Jeremie 14:20-15:1, Sermon sur le Livres de Jérémie et des Lamentations, *Supplementa Calviniana, Sermons inédits*, VI, pu. par R. Peter,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1, 10.

7) Sermon sur la Genèse 1:3-5, du mardi 5e jour de septembre, 1559, *Supplementa Calviniana*, XVI, 22.

8) *Institution*, (1536), 63.

동적으로 '통치' 하고 '지배' 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이다.<sup>9)</sup> 그렇게 적극적인 섭리 이해 역시 그의 저술들 속에서 자주 등장한다. 섭리는 "그가 우리를 양육하고, 돌보고, 보호하는 것"이며 "우리의 육신까지도 보호하고 유지해 주는 것"이다.<sup>10)</sup> 또한 그는 설교들에서도 말한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하늘에서 감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자신의 손과 능력으로써 모든 사건들을 이끌어 가십니다."<sup>11)</sup>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창조자라고 부를 때, 그것을 한 순간에 제한하지 맙시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계를 건설하시면서 오늘날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 안에 갖고 계시며, 그가 이 세상의 사건들을 배열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와 하나님의 통치는 연결된 두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는 연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그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것을 배웁시다."<sup>12)</sup>

### III. 섭리와 계속적 창조

그런 칼빈의 섭리론을 볼 때, 그리고 위의 마지막 욥기 설교 인용문에서 명시되듯, 흥미 있는 것은 그의 섭리는 *creatio continua*(계속적 창조) 개념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sup>13)</sup> 즉 칼빈의 사상에서 창조는 일회적인 최초의 창조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리고 언제나 새롭게 창조되고, 재창조되는 과정 속에 있다. 칼빈은 그런 섭리로서의 계속적 창조를 분명하게 주장했다. "하나님이 그의 작품을 단 번에 완

9) R. Stauffer, 266.

10) *Institution*, (1536), 95.

11) 33e sermon sur Daniel, *Opera Calvini*, XLI, 678, R. Stauffer, 263 재인용. 이하의 '주'에서 설교 뒤의 R. Stauffer의 표기는 재인용을 말함.

12) 130e sermon sur Job, *Opera Calvini*, XXXV, 151-152, R. Stauffer, 264.

13) Cf. R. Stauffer, 264.

성시킨 일시적이고 잠깐 동안의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냉정하고 혐오스런 일일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최초의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세계의 영속적인 상태 속에서, 현재와 같이 빛나고 있다.”<sup>14)</sup>

그 ‘계속적 창조’ 개념은 특히 그의 창세기 설교에서 아주 잘 드러난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그가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과, 그가 능력을 펼치신 것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유지되고, (그분 외에) 다른 기초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시편 104편에서 ‘그가 그의 영을 거둔다면 모든 것이 흔들리고 뒤섞여서, 결국 우리는 무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을 펼치실 때, 즉 그의 능력을 모든 곳에 펼치실 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생기를 주며, 또한 바로 그것이 땅의 표면을 새롭게 합니다.”<sup>15)</sup>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단지 최초의 7일으로써만 제한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역시 창세기 설교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상태에서 보는 이 지속적 상태 역시, 우리가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첫 번째 창조에 뒤지지 않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천지창조가 설명될 때는 하나님이 그가 만든 모든 것을 인도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이 포함된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창조를 6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sup>16)</sup>

#### IV. 섭리와 예지, 작정, 그리고 전능

섭리는 그 용어로서는 providence, “미리 본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

14) *Institution*, I, 16/1.

15) Sermon du lundy 4e jour de septembre, 1559, Sermon 1er sur la Genèse, 1:1-2, *Supplementa Calviniana*, XI/1, 2-3.

16) *Ibid.*, 11.

래서 칼빈의 섭리론 역시 신의 예지(préscience), 또는 전지(omniscience)의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스토페르가 지적했듯이, 칼빈에게 있어서 섭리는 "우선 우리의 지상적 범주들에 예측되지 않는 창조주가 영원 전부터 이 세상에서 일어나야 할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이 발생하기도 전에조차도 인간 역사의 가장 작은 사건을, 한 개인의 실존의 가장 사소한 일을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7)</sup>

그러나 이 예지의 문제에 대해서 칼빈은 다소 모순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그는 설교들이나 성서 주석에서는, 그리고 『기독교강요』의 3권 예정론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예지를 선선하게 인정했지만, 『기독교강요』 1권의 섭리를 다루는 부분에서는 예지를 부정하는 것 같은 입장을 보였다. 먼저 그가 예지를 받아들였던 본문을 보자. "하나님에게는 지금 있지 않는 것이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지하는 사건들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는 도래되어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이해했습니다. 그에게 감춰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하나님은 사건들이 일어나야지만 아는 유한한 인간들과 다릅니다...그러나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투명합니다...그분은 지금 이것저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하지 않으시며, 오직 전부를 (한꺼번에) 알고 있습니다."<sup>18)</sup>

반면에 칼빈은 섭리를 다루는 곳에서는 예지를 비판하고 배격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섭리는 예지가 아니라 현재적이다."<sup>19)</sup> 또한

17) R. Stauffer, 263.

18) 33e sermon sur Daniel, *Opera Calvini*, XLI, 677, R. Stauffer, 263. 또한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이사야 21장에서 기술된 사건들) 미리 아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행하신 것이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망상자들이 상상하듯, 하늘에서 쉬기 위하여 미리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는 그가 명하신 것을 그리고 그가 행하기를 원하는 것을 미리 보고 있습니다." 26e sermon sur Esaie 13-19, *Supplementa Calviniana*, II, 240, R. Stauffer, 284. "모든 것은 하나님의 눈 앞에 있기 때문에 미래의 것이나 과거의 것이나 그가 모르는 것은 하나도 없다." *Institution*, III, 21/5.

“첫째로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때, 그 용어는 하나님이 하늘에 태만하게 거하면서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장과 같이 키를 붙잡고 모든 사건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의미한다.”<sup>19)</sup> 즉 칼빈은 여기서 섭리는 예지가 아니라 ‘통치’ 혹은 ‘지배’라고 했다. 그러나 실은 이 본문 역시 예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단순히 예지일 뿐이고 세상의 역사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흔히 말하는 “철학자들” 또는 “불신자들”의 잘못된 견해였을 뿐이다. 즉 칼빈은 『기독교강요』의 섭리론 자리에서는 예지를 논쟁적인 맥락에서 설명하는 바람에 부정하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예지로서의 섭리는 또한 하나님의 작정(décret) 또는 결의(conseil)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왜냐하면 예지는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것을 미리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어떤 결의에 의해서 작정하신 일이 일어날 것을 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섭리는 곧 ‘작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알고 계신다는 것이다. 칼빈은 사도행전 주석에서 그 점을 설명했다. “성 누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한다. 즉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확실한 작정이다... 이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지점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만큼 그 두 가지를 깊이 있게 구별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것으로써 모든 세계를 통치하는 그의 작정(conseil)을 무시하고 험벗은 섭리(providence nue)를 집착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모든 일을 미리 보고 계신 것 뿐만 아니라 그는 이미 그것들을 작정하셨고, 명령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그의 마음에 들게 일어나도록 작정했다는 것이다.”<sup>20)</sup> 그래서 칼빈에게서 섭리는 곧 작정의 문제였다.

19) *Institution*, I, 16/4. 1560년 프랑스어 판에 붙은 제목.

20) *Ibid.*

21) *Comment.*, Actes 2:23, *Commentaires sur le Nouveau Testament*, II. (Toulouse: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일컬어지는 세상이나 자연 현상의 전개와 진행, 역사의 흐름이 모두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 것이므로 모두 필연에 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작용 또는 운동은... 하나님이 알고 원해서 결정해 놓은 것이 아니면 일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알 수 없는 그의 작정에 의해 지배된다.”<sup>22)</sup>

뿐만 아니라 섭리는 하나님의 전능의 문제와 관련된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섭리하고, 예지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실제로 이루어나가는 능력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칼빈은 섭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능을 자주 강조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우리가 그분에게서 그 전능을 인정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은 궤변론자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헛되고, 태만하며 거의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깨어 있고, 효력과 행동으로 꼭 찬 전능이다.”<sup>23)</sup>

Société des Livres Religieux), 1893, 372-373.

- 22) *Institution*, I, 16/3.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올바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감찰하고 있는 것은 일어나게 될 일들을 미리 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가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상가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건들을 사후에(après coup) 미리 보는 것처럼 멀리서 방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결정하는 것 말고는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의지는 모든 사건들의 규칙입니다.” 130e sermon sur Job, *Opera Calvini*, XXXV, 153, R. Stauffer, 284.
- 23) *Institution*, I, 16/3. 또한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변동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하늘에서 감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자신의 손과 능력으로써 모든 사건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은 그것들을 그가 자신의 계획 속에서 정한 목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어떤 것도 그분의 의지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33e sermon sur Daniel, *Opera Calvini*, XLI, 678, R. Stauffer, 263. “(섭리라는 용어는) 하나님이 하늘에 태만하게 거하면서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장과 같이 키를 붙잡고 모든 사건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 용어는 그의 눈뿐만 아니라 손에까지 미친다.” *Institution*, I, 16/4.



## V. 운명이나 우연이나 운수가 아닌 섭리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고 예지하고, 역사하는 섭리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고 기대하는 운명이나 우연이나 운수, 재수, 요행 같은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사실상 칼빈의 섭리사상은 그런 세속적 풍조들과의 투쟁이기도 했다. 이 풍조는 사람들에게 매우 흔하고 뿌리 깊은 것으로서, 사상적이고 철학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했다. 그것은 스토아적인 운명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세상은 일반적인 법칙이나 원리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또는 운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런 것을 벗어나는 사소한 여러 가지 일들은 우연에 의한 것일 뿐이라는 사상이다.<sup>24)</sup>

사실 칼빈에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운명적으로나, 또는 우연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은 스토페르의 표현을 빌리면 "참을 수 없는"<sup>25)</sup> 일이었다. 칼빈에 따르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에 의한 것이다. 단지 사람의 정신의 우둔함 때문에 운명이나 우연처럼 생각될 뿐이다. "발생하는 사건들의 질서, 이유, 목적 및 필연성은 대부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숨겨져 있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될 수 없어서, 우리들에게는 거의 운명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사건들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sup>26)</sup> 칼빈은 또한 읊

24) Cf. H. Strohl, *La Pensée de la R forme*, (Neuchâtel: Delachaux et Niestlé S. A., 1951), 161. 찰스 파티는 스토아적 운명론의 철학적 기원을 플라톤과 키케로에게까지 소급해서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플라톤은 신들은 크고 작은 일들에 관계하지만, 특별 섭리는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키케로는 *De Natura Deorum*에서 "불멸의 신들의 돌봄과 섭리는 인류 전체만이 아니라 개인들에게까지 부여된다"고 함으로써 어느 정도 특수 섭리를 받아들이는 듯 하지만, 몇 장 뒤에 가서 '신들은 큰 일들만 유의하고 작은 일들은 경시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역시 일반 섭리에 머물렀다. Ch. B. Par-tee, 126.

25) R. Stauffer, 261.

26) *Institution*, I, 16/9.

기 설교에서도 말한다. “만약…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지 않고 어떤 것이 운수에 따라서 생겨난다고 그리고 그 운수가 세상의 일부를 만들어내는 여신이라고 상상한다면, 영광이 오직 그분에게만 돌려질 수 없게 됩니다.”<sup>27)</sup> 여기서 볼 때, ‘우연’을 받아들이는 일은 칼빈에게서 창조주 하나님 이외의 또 하나의 신을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나타난다.<sup>28)</sup>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이나 역사는 운명이나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섭리에 의한 것이다. 즉 운명이나 우연은 섭리와는 정반대의 개념이다. 그래서 운명론이 지배하면 섭리론은 사멸되고, 섭리론이 지배하려면 운명론은 배격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세상에 만연해 있는 운명론이나 우연론을 버리고 매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한다.<sup>29)</sup> 그러나 사실 세상은 예기치 않은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가? 뜻밖의 일들, 정도에서 벗어난 일이 또 얼마나 많은가? 그럴 때 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운수나 우연, 재수 탓을 하게 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칼빈은 자신의 설교를 들으러 오는 신자들 역시 항상 그 문제에 유혹을 받고, 시험당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운수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같은 혼란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날 때, 그것은 신자들에게 아주 나쁜 시험입니다. 보십시오. 이런 마귀적인 속담들이 생겨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모든 것은 우연히 발생한다.’ ‘사건에는 맹목적인 운수가 있다.’ ‘이유도 없고 정도도 없다.’ 또는 ‘모든 것은 어떤 알 수 없는 필연성에 의해서 일어난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해주지 않는다.’ …바로 그런 불경한 언사들은 모든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sup>30)</sup> “사람들은 언제나 운수라는 이 미친 견해를 가지

27) 130e sermon sur Job, *Opera Calvini*, XXXV, 152. R. Stauffer, 261.

28) R. Stauffer, 261.

29) *Institution*, I, 16/2.

30) 91c sermon sur Job, *Opera Calvini*, XXXIV, 371. R. Stauffer, 262.

고 있습니다. 아, 내게 재수 없는 일이 생겼구나, 또는 아, 재수가 좋다!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리로 (그분의 손길로) 이끌려야 합니다.”<sup>31)</sup>

칼빈은 그런 것은 불신앙일 뿐이며, 그런 운수로 보이는 사건의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강변했다. “우리가 격변하는 사건들을 접할 때 운수라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 만일 우리가 일년 동안 평화로웠다면, 그 다음 해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갑자기 머리털이 곤두설 만큼 무서운 혁명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 만일 사람들이 지금 일어난 일이 우연일 뿐이라고 결론내리며,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배열하기 위해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이 하늘에서 잠자고 계신다고 상상한다면, 보시오, 세상은 불경건에 취해 있는 것과 같습니다.”<sup>32)</sup> “우리 주가 우리에게 선을 베푸실 때 이것이 운수로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배웁시다.”<sup>33)</sup>

칼빈은 우연과 운수를 극단적으로 부정하는 데까지 이른다. 칼빈에게는 역사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나 변수들, 급작스런 변화들이나 재난들마저도 전혀 우연이 아니다.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고삐를 잡고 계신다.<sup>34)</sup>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을 배열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릴 것 같은 엄청난 재난들을 본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고삐를 잡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진정시키십니다.”<sup>35)</sup> 그래서 그렇게 역사의 고삐를 잡고 계신 섭리의 하나님은 칼빈

31) 55e sermon sur Job, *Opera Calvini*, XXXIII, 689, R. Stauffer, 284.

32) 1er sermon sur Esaie 13-19, *Supplementa Calviniana*, II, 1, R. Stauffer, 282.

33) 104e sermon sur Job, *Opera Calvini*, XXXIV, 544, R. Stauffer, 284.

34) R. Stauffer, 262.

35) 1er sermon sur Esaie 13-19, *Supplementa Calviniana*, II, 5, R. Stauffer, 283. 또한 “자연 질서들이 뒤바뀐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도래할 때, 모든 것이 타들어갈 것 같은 지독한 가뭄이 들 때도 하나님은 운수에 채운 고삐를 조금도 놓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47e sermon sur Job.

에게서 앙리 스트롤의 표현인 “조정자 하나님”(Dieu-Moderateur), “진행중인 섭리”(providence actuelle)의 개념을 받아들이게 한다.<sup>36)</sup>

## VI. 일반섭리와 특별섭리, 그리고 제3의 섭리

칼빈의 섭리는 일반섭리(또는 보편섭리, providence générale ou universelle)와 특별섭리(또는 개별섭리, générale ou particulière)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칼빈은 1545년 『자유와 반박』에서 섭리론을 일반섭리와 특별섭리, 그리고 신자들에 대한 “매우 특별한 섭리”(très spéciale ou singulière)라는 세 가지 범주로써 설명했다. 또한 그는 『기독교강요』 최종판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인류보다 특히 교회를 “더 가까이서” “얼마나 정성껏” 돌보고 있는지를 명시했다.<sup>37)</sup> 그래서 그것을 섭리의 세 번째 범주로 볼 가능성은 열려 있다. 실제로 지난 세기 전반 드 빼에는 그 세 번째 범주를 받아들였다.<sup>38)</sup> 그러나 스토페르는 그것이 칼빈의 저술 속에서 불분명(assez floue)하게 나타나고, 특히 설교들 속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거부했다.<sup>39)</sup> 찰스 파티<sup>40)</sup>나 이양호 역시 칼빈의 섭리를 두 개의 범주로만 분류한다.<sup>41)</sup> 그러나 나는 칼빈의 세

---

*Opera Calvinii*, XXXIII, 583-584. “세상에서 일어나는 변화들과 혁명들은 운수으로써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위로부터의 비밀의 교배가 있으며, 하나님이 위로부터 그분 보시기에 좋아서 명하지 않으신다면 사건들은 결코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시다.” 48e sermon sur Job, *Opera Calvinii*, XXXIII, 593, 이상 R. Stauffer, 262.

36) H. Strohl, 161.

37) “섭리는 하나님이 인류를 얼마나 배려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특히 하나님이 그의 교회를 위해서는 더 가까이서 바라보며 얼마나 정성껏 지켜주시는지를 보여주려는 목적을 갖는다.” *Institution*, I, 17/1, 6.

38) E. de Peyer, 37.

39) R. Stauffer, 281.

40) Ch. Partee, 127-128.

번 제의 섭리, 즉 신자들을 위한 “매우 특별한 섭리”를 독립적으로 분류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본다.

1. 일반섭리: 칼빈은 『기독교강요』 최종판에서는 일반섭리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히 보면 일반섭리만을 받아들이는 ‘철학자’들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세계나 자연의 일반적인 운동에 의해 진행된다고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게으르고 나태한 혹은 무기력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그의 지속적인 섭리를 부인한다.<sup>41)</sup> 그러나 칼빈은 말한다. “나는 다음과 같은 전제에서 하나님의 보편적 섭리라고 지칭되는 것을 배척하지 않으며, 또한 그것은 다른 한 편으로는 나 역시도 동의할만 하기도 하다. 즉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 지배되며, 그는 그가 한 번 세워 놓은 그대로 자연의 운동을 유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각 피조물을 특별하게 돌보고 있다는 점이다.”<sup>42)</sup>

그렇다면 일반섭리란 무엇인가? 그것을 칼빈은 『자유과 반박』에서 잘 설명했다. “첫째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면서 각각에게 부여한 조건과 속성에 따라 인도해가는 보편적 활동이 있다. 그 인도는 우리가 자연의 질서라고 부르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다. 불신자들이 세상의 배열 속에서 눈으로 보는 것만 받아들이고, 자연을 모든 것을 지배하는 여신으로 세워놓지만, 우리는 그런 영광을 모든 것을 다스리고 조절하는 유일한 것인 하나님의 의지에 부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들의 궤도를 도는 해와 달과 별들을 볼 때, 그것들이 명령하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것들을 인도하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의 능력에 의해서란 것을 인정하자...이런 보편적 섭리는 성서에서 우리에게 종종 언급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41) 이양호, 105.

42) *Institution*, I, 16/1, 3, 4 등.

43) *Institution*, I, 16/4.

하나님을 그의 모든 활동들 속에서 영화롭게 하고자 함이다.”<sup>44)</sup>

즉 칼빈은 자연 질서 속에서 모든 것이 각자의 조건과 속성에 따라 운행되고 일어나는 일반적 현상들을 창조주 하나님의 의지에 따른 일반적 섭리로 설명했다. 그 일반섭리에는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이나 별들의 운행, 계절의 순환, 기후의 변화, 땅과 수목의 변환, 비나 우박, 서리, 한파... 등 다양하게 이뤄진다. 칼빈은 그런 일반적 현상과 변화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는 철학자들을 다시 한 번 비난한다. 그들은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애쓰면서도 이차적인 원인에 머무르며, 일차적인 원인인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기를 잊어버렸다는 것이다.<sup>45)</sup> “철학자들은 이유들을 찾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천체의 운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별들의) 그런 배열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은 대체 어디로부터 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으로부터입니다. 최초의 원인에까지 소급해 들어가야 합니다. 그 사실로부터 그들이 이 점을 깨닫지 못한다면 짐승들 밖에는 안 됩니다.”<sup>46)</sup>

그래서 칼빈은 자연의 모든 현상의 배후에는, 최초의 원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기상 이변이나, 변화들, 자연의 일상적인 흐름을 끊어놓는 뜻밖의 사건들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계절의 순환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 이고 '주의의 환기' 이다. “그분은 하늘과 땅에 대해서, 비와 맑은 날씨에 대해서 지배하심으로써 그분이 마음에 드는 대로 변화를 가져오시며, 게다가 그것들을 이유 없이 가져오시는 게 아닙니다. 자연에 지속적인 순서가 있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손을 쓰고 있지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세계를 창조했다고는 충분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신다고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봄이 왔을 때, 그것이

44) "Contre la secte des libertins", 186-187.

45) R. Stauffer, 265.

46) 156 sermon sur le Deut ronome, *Opera Calvini*, XXVIII, 392, R. Stauffer, 265.

작년과 똑같은 식으로 진행된다면 그것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긴 겨울을 보고, 늦게 시작하는 겨울을 보고, 더 이른 계절이 있고, 더 오래 가는 계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가 오는 겨울을 보고 또 다른 겨울은 건조한 겨울, 한 해는 폭설을 보고, 다른 해에는 전혀 눈이 라고는 보지 못합니다. 한 해는 덥고 다른 해는 춥습니다. 그런 불균등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태양은 다른 해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해에도 합니다. 모든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잘 맞춰진 시계보다도 더 잘, 언제나 콤파스로 재놓은 것처럼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변화는 왜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sup>47)</sup>

그러나 칼빈은 그런 자연의 변화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변덕스럽다고 공격하는 자들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하나님이 오해될 수는 없다. 그래서 칼빈은 말한다. “어떤 환상가들처럼... 하나님이 변하는 분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은 그가 여름과 겨울을 만들 때, 제 시기를 바꾼다고 말합니까? 우리들은 여러 해의 계절들을 봅니다. 우리는 땅이 푸르러지는 것을 보고, 나무들이 꽃피우고, 그리고 나서 과일들이 열매 맺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겨울에는 모든 것이 죽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들은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sup>48)</sup> 즉 자연 속의 여러 가지 변화나 이변이 있어도, 그것은 언제나 기본적으로는 변치 않는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본성은 변치 않으므로, 하나님을 잘 변한다거나 변덕스럽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 2. 특별섭리: 칼빈은 일반섭리를 인정하고, 광범위하게 설명했다고

47) 156e sermon sur le Deuteronome, *Opera Calvini*, XXVIII, 392-393, R. Stauffer, 264-265.

48) 10e sermon sur Galates, *Opera Calvini*, L, 390, R. Stauffer, 265.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이 특별섭리로 이어져야 하거나, 혹은 특별섭리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런 점에서 찰스 파티가 “칼빈은 이 철학자들과 같이 보편섭리를 확신했지만, 그의 주요한 관심은 하나님의 개별섭리를 드러내는 데 있다…철학자들과 달리 칼빈의 관점은 하나님의 돌봄의 보편성보다는 개별성에 더 집중한다…”<sup>49)</sup>고 했던 것은 타당하다.

칼빈은 특별섭리 역시 『자유파 반박』에서 잘 정의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자신의 선과 정의와 심판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지금 그의 종들을 돕기도 하고, 악인들을 벌하기도 하고, 그의 신자들을 인내하게 하거나 부성애로 징계하기도 한다. 것처럼 좋은 것으로 풍부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할 때, 그는 계절에 따라 비를 내리고, 그의 태양으로써 열과 좋은 기후를 주시며, 모든 다른 자연적 수단들을 그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그의 손을 거둘 때 하늘은 청동같이 되며(비정해지고), 땅은 철과 같이 된다(차가워진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천둥을 울리고, 우박과 진눈깨비를 내리며, 폭풍을 일으키며, 가뭄을 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이방인들과 무지한 자들이 운명에다 돌리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즉 단지 우리가 말했던 우주적 힘에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적절하다고 보는 바에 따라서 사건들을 인도하는 특별한 법령(ordonnance spéciale)에 돌려야 한다.”<sup>50)</sup>

그래서 특별섭리는 자연의 일상적인 흐름들 속에서도 비밀상적, 혹은 비자연적 사건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활동을 의미한다. 즉 인간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개입하고 활동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다. 그것은 전체 인류를 향한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각 개인들의 개별적인 사건들에까지 해당되는 섭리이다.<sup>51)</sup>

49) Ch. B. Partee, 126.

50) “Contre la secte des libertins”, 187.

51) *Institution*, I, 16/6.



그런데 특별섭리는 일반섭리를 통해 이루어진다. 즉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유지 보존하는 것은 바로 인간들을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살아가게 한다. 그는 날마다 태양을 뜨게 하고, 밤낮을 주관함으로 사람들이 사는데 어려움이 없게 한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세상의 (일반)섭리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공급하고, 그들을 부양하며, 그들에게 날마다 생명을 부여하고 존재를 유지시킨다.<sup>52)</sup> 칼빈은 욥기 설교에서 말한다. “성서는 우리가 매일 보는 것에 대해 종종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비와 좋은 날씨를 보내주신다는 것이며, 그가 땅에 결실이 있게 하심으로써, 땅이 우리를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와 좋은 날씨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는, 그리고 땅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sup>53)</sup>

특기할 만한 것은 창조주는 “자연의 질서”를 인류의 “공급”에 사용하면서 인류 가운데서 그 어떤 차별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그 어느 누구도, 악인이나 불신자라고 하더라도 소외시키지 않는다. 칼빈은 말한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유지하십니다. 피조물들이 그가 입양한 그의 자녀들과 같이 그렇게 귀하지 않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선인들에게나 악인들에게 비추어주는 것처럼, 그가 불신자들까지도 보장해주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의 선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먹고 있는 것을, 그리고 모든 이들이 많은 위험들로부터 구조되는 것을 봅니다... 영혼의 영적 구원의 관점에서가 아니고, 그가 모든 피조물들을 유지하고 계십니다.”<sup>54)</sup> 또한 그는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에게 공급하기를 원합니다” 또는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를 온 인류에게 예외 없이 느끼게 했습니다”라고 말한 뒤에, 약간의 유머를 가지고 지적한다. “가장 악한 자들도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은

52) R. Stauffer, 266.

53) 67e sermon sur Job, *Opera Calvini*, XXXIV, 68-69, R. Stauffer, 267.

54) 33e sermon sur I Timothée, *Opera Calvini*, LIII, 400, R. Stauffer, 267.

그들을 양육하기 위한 재화도 마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들은 흔히 신자들보다도 훨씬 더 기름진 것을 먹기까지 합니다.”<sup>55)</sup>

3. 제3의 섭리/ 신자들에 대한 “매우 특별한 섭리”: 앞에서 언급했듯이, 칼빈은 『자유와 반박』에서 하나님의 특별섭리로부터 “세 번째 종류”의 섭리, 즉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속한 교회와 신자들을 향한 “매우 특별한 섭리”를 독립적으로 다루었다. 즉 “하나님의 행하시는 활동의 세 번째 종류는 그가 살아 계셔서 그의 성령으로 그의 신도들을 다스리시면서 그들을 지배하신다는 것”이다. 바로 그 하나님이 자신의 활동으로써 죄인인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행하고 완성하며, 우리가 그의 지식에 도달하도록 우리를 비추며, 우리를 이끌어 내고, 우리의 완고함을 부드럽게 해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만들며, 우리를 기도하도록 고무시키며, 사탄의 모든 시험들에 저항하는 은혜와 힘을 주시며, 우리가 그의 계명에 따라 살게 한다.” 그래서 “우리들이 선을 행하기를 바라는 것이나 그것을 실행할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를 신적인 삶으로 거둬나가게 하는 영의 초자연적 은혜로부터 나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행하는 방법이다. 즉 하나님은 그들의 사악함을 허물어뜨리면서 그의 성령을 통해 그들을 순종 가운데로 인도하신다.”<sup>56)</sup>

즉 그것은 『기독교강요』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이 교회를 더 가까이서 바라보며 정성껏 돌보아주는 섭리”<sup>57)</sup>이다. 그리고 스토페르는 그 섭리가 칼빈의 설교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으나, 물론 명칭으로써는 아니지만 내용으로써는 잘 나타나고 있다. 가령 사도행전 설교 같은 데서, 그 섭리는 이제까지의 일반섭리나 특별섭리에 대한 설명을 뛰어넘는 “매우 특별한” 내용을 갖는데, 그것은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지는” 섭리이다. 그것은 “이

55) 81e sermon II Samuel, *Supplementa Calviniana*, I, 709. R. Stauffer, 267.

56) “Contre la secte des libertins”, 190-191.

57) *Institution*, I, 1711.

세상에서 모든 것을, 특히 교회에 대한 박해를 바깥놓으셔서 신자들을 구원하실” 섭리로서, 하나님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준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거기서 성찰해야 하는 참된 거울이다.” 이어서 그는 말한다. “십자가는 왕의 마차와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타고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안에서 그분의 섭리를 그와 같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그의 아들에게서 우리의 피난처를 얻어야 하고, 악인들이 완전히 이기는 것 같을 때라도, 악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모든 것을 뒤엎고 무너뜨리는 것 같을 때라도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sup>58)</sup>

그러므로 이 섭리는 세 번째의 것으로 독립되는 것이 타당하다. 무엇보다도 칼빈 자신이 섭리를 집약적으로 설명했던 『자유파 반박』에서 그것을 세 번째의 범주로 인정하고 설명했다. 『기독교강요』 최종판에서도 그것은 “인류보다 특히 교회를 더 가까이서,” “정성껏” 돌보는, 즉 교회에 대한 “더 특별한 섭리”로 나온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그의 설교들과 『기독교강요』 여러 판들에서 종종 발견되는 것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칼빈의 이 세 번째 섭리는 그의 교회와 신자들의 개개인의 삶과 구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가장 잘 반영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칼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니었던가? 서론에서 말했듯이, 칼빈이나 종교개혁자들이 섭리를 강조했던 것은 종교개혁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칼빈에게서, 종교개혁의 투쟁 속에서 박해받고 패배할 수도 있는 개혁교회와 그 신자들의 생명과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이고, 가장 시급한 관심사였다. 그래서 교회와 신자들에 대한 “매우 특별한 섭리”, 고난과 역경을

58) *Sermon on the Acts of the Apostles, Du Dimanche 25e jour de may 1550, 4: 24-31, 109-110.*

이기도록 신자들에게 성령으로써 믿음과 힘을 주는 이 세 번째 섭리는 형식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 그리고 명분(cause)에 있어서도 독립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정당하다.

## VII.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태도

칼빈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 즉 하나님이 섭리로써, 무엇보다도 특별 섭리로써 인간에 대한 유지와 부양,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하심은 인간에게는 더할 나위없는 은혜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그분에게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한다.<sup>59)</sup>

한편, 칼빈은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함에 따라서, 인간의 노력은 상대적으로 저평가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이 먹고 마시는 식량, 생산물은 노동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고, 확보해 주는 것일 뿐이다. “농부가 자신의 쟁기를 들고 있고, 황소들을 물고 있고, 모든 다른 농구들을 갖고 있다고 해도…그러나 땅에서 식량을 생산해내는 것은 그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확보해주셨기 때문입니다.”<sup>60)</sup> 바로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인간이 가져야 하는 “경건”이 생겨난다. 그것은 곧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

59) *Institution*, (1536), 63.

60) 19e sermon sur l'Eph siens, *Opera Calvini*, LI, 479. 또한 “우리는 마시거나 먹을 것을 가지지 못하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 조달되지 못한다면 이를 간도 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빵을 주는 것이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땅을 경작할 수 있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노동의 모든 힘을 기울여도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갈아도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유감입니다! 그들의 양식인 밀을 그들이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52e sermon sur Job, *Opera Calvini*, XXXV, 422. 이상 R. Stauffer, 290-291.

하며, 또한 얻은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sup>61)</sup> 즉 하나님의 섭리 신앙을 가진 신자는 삶을 위해 수고하고 노동하지만, 그러나 그 결실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다. 또한 좋은 일에서 뿐만 아니라 시련이나 환란을 당한다고 해도, 그것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선의를 믿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려야 한다. 칼빈은 말한다. “모든 역경들도 마치 그의 손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여겨서 침착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또 그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고 해도 그의 섭리가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구원을 생각하자.”<sup>62)</sup>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자들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풍부할 때나 빈곤할 때나, 순탄할 때나 역경에 처할 때나, 그 언제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구조를 간구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섭리 신앙을 가질 때, 인간은 무책임하고 게으르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섭리라면, 그 섭리 아래서 과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나 칼빈은 거기에 대해,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를 설명하면서 반론한다. “거기에서, 그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의지에 순종하고, 우리의 일들을 질서 있게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을 제한하신 분이 또한 그 배려를 우리에게 위임했으며, 우리에게 생명을 보존할 방법을 주셨으며, 우리에게

61) R. Stauffer, 269.

62) *Institution*, (1536), 63.

게 위험이 닥치지 않도록 그것을 예방하게 하고, 위험들을 방지할 구제책도 주셨기 때문이다.”<sup>63)</sup> 그래서 나이젤의 평가가 적절하다. “신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책임을 저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다. 신의 섭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단순히 소일하며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신은 인간에게 이성과 의지를 주셔서 그것을 사용하며 결단에 이르도록 하신다.”<sup>64)</sup> 또한 칼빈은 섭리의 교리가 인간을 무능하고 나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변한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인간은 강해지고, 또 강해져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때, 그리고 그가 교회를 세상의 창조 때부터 영원히 미리 아셨다는 것을 볼 때, 그리고 그가 모든 위험들로부터 영원히 신자들을 지켜주실 정도로 신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강해져야 되겠습니까!”<sup>65)</sup> 그래서 두메르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섭리 교리는 칼빈주의자들에게서는 나태하고 무책임한 체념의 교리와는 관계없이 지칠 줄 모르는 행동의 교리가 된다. ‘주가 그것을 원하셨다.’ 그리고 그가 결과들을 유의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써 해야 할 것을 물어보게 될 것이고,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보는 이들에게도 주저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sup>66)</sup>

### VIII. 결론

칼빈의 섭리론을 아마도 세계 최초로 체계적으로 다루었던 요셉 보

63) *Institution*, I, 17/4.

64) W. Niesel, 71. *Institution*, I, 17/4, 6.

65) Sermon on the Acts of the Apostles, Du Dimanche 25e jour de may 1550, 4; 24-31, *Supplementa Calviniana*, VIII, 108.

66) E. Doumergue, 131.

하텍은 그의 섭리론이 “지적인 성찰의 열매가 아니라 생생한 경험의 신학적 해석”이었다고 평가했다.<sup>67)</sup> 그것은 그 종교개혁자의 삶, 즉 카디에의 묘사에 따르면, “조용히 살려고 했으나 위로부터 압도해온 하나님의 개입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뜻과 희망과 전존재를 버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길들여지고, 그분의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승리로 승리할 수 있었던”<sup>68)</sup> 칼빈의 삶의 신학적인 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섭리론의 결과, 칼빈을 따랐던 후계자들, 프랑스의 위그노들, 네덜란드와 스코틀랜드, 뉴잉글랜드 등의 칼빈주의자들은 가혹한 조건과 고난 중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승리했던 사람들, 또는 에밀 두메르그가 표현했던 대로 “지칠 줄 모르는 행동의”<sup>69)</sup> 사람들이 되었다. 그런 인간성, 그런 삶의 유형은 오늘날 서양의 근대 문명을 일으킨 주역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고, 더 나가서 현재의 개신교도들, 특히 개혁교회 전통의 신자들에게까지도 본받을 만한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 점들을 지적하면서 나는 칼빈의 섭리론이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몇 가지 지적함으로써 이 연구를 마치고자 한다.

첫째, 칼빈의 섭리론은 계속적 창조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인들의 진화론적 세계관을 수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유일회적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창조를 이루어나 가신다. 즉 자연에서의 생성과 소멸, 변화와 변이, 그리고 진화라는 현상의 배후에 하나님의 숨은 섭리가 작용한다는 점에서 기독교와 자연과학, 하나님의 창조와 자연의 진화는 상반되거나 대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67) J. Bohatec, 440-441, R. Stauffer, 261 재인용.

68) Cf. J. Cadier, *Calvin, l'homme que Dieu a dompté*, 이오갑 역, 『칼빈, 하나님이 길들인 사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5), 8.

69) E. Doumergue, 131.

둘째, 그의 섭리론은 자칫 나약해질 수 있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강한 신념과 신앙으로 무장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산업과 과학, 의학 등의 발전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를 누리고 있고, 안전을 보장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심약하고, 사소한 것에도 쉽게 동요되고, 불안에 빠져 들어가기도 한다. 섭리론은 그들에게 인간의 삶과 존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주관되고 인도된다는 믿음을 갖게 해줌으로써,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셋째, 그것은 또한 무기력한 운명론을 피하게 해준다. 과학과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운수나 요행에 돌리면서 점술가나 운명철학자(?)들을 찾아다니는 미신에 심취해 있다. 그러나 섭리론은 인간의 생사화복이 운수나 팔자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자신을 통해 이루어나가는 신앙적이고 개척자적인 삶을 살도록 돕는다.

끝으로, 그의 섭리론은 인류에게 차별이나 불평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연과 인류에 대한 섭리를 통해 하나님은 인종이나 국가나 종교나 그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려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칼빈이 “매우 특별한 섭리”로써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말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신앙적이고 교회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역사일 뿐, 사회, 경제, 문화, 인종적인 측면에서는 그 어떤 차별이나 배제, 불평등이 없다. 칼빈의 그런 사상은 가장 발전된 문명국들에서조차도 인종 차별과 이른바 “중요 범죄”가 극성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주제어

칼빈, 하나님, 섭리(Calvin, God, Providence)



## 참고 문헌

- Bohatec, J. *Calvins Vorsehungslehre*, in *Calvinstudien*, Festschrift zum 400. Geburtstag Johann Calvins. Leipzig, 1909.
- Boisset, J. *Calvin et la souverainet  de Dieu*. Paris: Ed. Seghers, 1964.
- Cadier, J. *Calvin, l'homme que Dieu a dompt *. 이오갑 역, 『칼빈, 하나님을 길들인 사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5.
- Calvin, J. *Chriatianae Religionis Institutio* (1536),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I, Ediderunt G. Baum, E. Cunitz, E. Reuss, Brunsvigae, Apud c. A. Schwetschke et Filium, 1863.
- \_\_\_\_\_. *Institution de la religion chr tienne* (1541),  d. par J. Panier, Paris: Les Belles Lettres, 1936. 참고 기독교강요 초판을 영역판으로부터 번역한 국역, 양낙홍 역, 『기독교강요』,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2.
- \_\_\_\_\_. *Chriatianae Religionis Institutio* (1559), *Opera Calvini*, II.
- \_\_\_\_\_. *Institution de la religion chr tienne* (1560),  d. par J. Cadier, Gen ve: Labor et Fides, 1955-1958. 참고 국역으로는 김문제 역, 『기독교강요』, 서울: 세종문화사, 1974 등.
- \_\_\_\_\_. *Commentaires sur le Nouveau Testament*, 4 volumes, Toulouse: Soci t  des Livres Religieux, 1892-1894.
- \_\_\_\_\_. *Sermons in Supplementa Calviniana*, Neukirchen: Neukirchen-Vluyn, 1936-.
- Doumergue, E. *Jean Calvin, les hommes et les choses de son temps*, IV, Lausanne: Georges Bridel & Cie Editeurs, 1910.
- Dowey, E. A. Jr., *The Knowledge of God in Calvin's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94.
- Niesel, W.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3.
- Parker, T. H. L. *Calvin, An Introduction to His Thought*. 박희석 역, 『칼빈신학 입문』. 교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1.
- Partee, Ch. B. *Calvin and Classical Philosophie*, Leiden: E. J. Brill, 1977 126-145. 이 연구는 D. McKim (Ed.), *Reading in Calvin's Theology*, 김종태 역, 『칼빈신학의 이해』,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4장에 "보편

- 섭리와 특수섭리에 대한 칼빈의 입장"이란 제목으로 재수록되었다.
- Peyer, E. De. "Calvin's Doctrine of Providence", *The Evangelical Quarterly*, 10 (1938).
- Pollet, J. V. *Huldrych Zwingli et le zwinglianisme*. Paris: J. Vrin, 1988.
- Reardon, P. H. "Calvin on Providence",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vol. 28 (1975).
- Stauffer, R. *Dieu, la Création et la providence dans la prédication de Calvin*. (Berne: Peter Lang, 1978).
- Strohl, H. *La Pensée de la Réforme*. Neuchâtel: Delachaux et Niestlé S. A., 1951.
- Wendel, F. *Calvin, sources et volution de sa pensée religieuse*, 2e éd., Genève: Labor et Fides, 1985. 김재성 역. 『칼빈, 그의 신학 사상의 근원과 발전』,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9.
-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7.
- 이오갑. "칼빈의 신론-초월과 임재의 변증법적 하나님",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5집 (2004).
- \_\_\_\_\_. "칼빈의 신정론", 『말씀과 교회』, 2006년 첫 번째 호.
- \_\_\_\_\_. "칼빈 예정론의 역사와 신학", 『목회와 신학』, 1994년 9-10월(통권 63, 4호).

## Providence according to Calvin

Lee, Okab  
Professor  
Korea Christian University  
Seoul, Korea

For Calvin, the providence means God's *manutenentia* and *conservatio* of the world that God has created. Besides it has a concept of the *rectio* and the *gouvernatio* because God rules and governs the world. Therefore the providence is not different from the *creatio continua*. God's creation is not terminated once for all, but continued and recreated. For Calvin, the creation is not limited in the first six days. In this perspective, Calvin's concept of the providence can solve the conflict between Natural Science(e.g., theory of the evolution) and the Christianity(e.g., theory of the creation). The appearance of the species and its disappearance, creation, transition, evolution etc. can be considered as God's acts for renewing or recreating all things today.

According to Calvin, the providence is differed from three kinds, that is, general providence, special providence, and the more special providence for the Church and the believers. The third providence is forgotten by the scholars since De Payer advocated it. But Calvin plainly stated it in the *Contre la secte des libertins* and *Institution* (I, 17/1). R. Stauffer also have rejected it because of the absence in the Sermons of Calvin. But it appears in his Sermons conceptually and substantially, particularly on The Acts of the Apostles.

Moreover, the providence of Calvin is connected to the context of the Reformation. For him, it is sure that it is the very important con-

cern to conserve the life of the Reformed Churches and believers. Therefore the third providence, that is the more special for the believers, is the major cause of his providence. It can't be buried in the special providence about the maintenance and conservation of the mankind. It is important that Calvin himself has told it in his many writings.